

기아차 광주공장 '62만대 증산' 7부능선 넘었다

시간당 58대 생산 노사 합의... 생산량 감소분 휴일 특근 만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가동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10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사에 따르면 지난 주말 노사가 2공장 증산협의를 진행한 결과, 증산 UPH(시간당 생산 대수) 관련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사측의 2공장 설비에 따른 목표는 66UPH였지만 이번 협의에서

노사는 58UPH로 최종 합의했다. 대신 생산량 감소분은 휴일 특근으로 만회하기로 했다.

노사의 2공장 UPH 합의는 기아차 원 조 광주지회의 전격 결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공장 증산협의를 그동안 광주지회와 2공장 소속 대의원들이 증산대책위를 꾸려 지난달 30일까지 사측과

증산 관련 7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난항을 겪어왔다.

광주지회는 기아차 지부 임시대의원 등 노조일정과 노조 증산대책위 내부 이견 등 증산협의를 장기간 지연되자 노동강도 완화 차원에서 증산 문제를 접근, 해결하기로 했다. 광주지회는 지난 3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증산 물량을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한 바 있다.

증산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2공장 UPH가 현재 46.1UPH에서 58UPH로 결정됨에 따라 지부부진했던 증산프로젝트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은 협의사항은 확대된 생산 대수에 맞춰 인원을 재배치하고, 기타 보완사항에 대해 추가협의를 진행하는 정도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확정

된 UPH를 바탕으로 인원 및 부서별 보완사항 등에 대한 추가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미 상당기간 지체된 증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만간 증산을 위한 노사협약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증산에 성공하면 광주공장의 연매출은 10조를 돌파하게 되며 기아차 최대 공장인 화성공장과 규모가 맞먹게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송기진 광주은행장 사의

이순우 우리금융회장 취임 앞두고 용단



그동안 송 행장은 시경 은행과의 경쟁에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 은행 과 2013 순천만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오는 14일 공식 사의를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대표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송 행장은 이날 오전 부서장급 이상이 참석하는 경영협의회석상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를 맞아 광주은행도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 인물이 새로운 지도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오는 14일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예초 송 행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고려하고 주변과 협의했으나 광주은행 매각이라는 대형 현안이 대두함에 따라 사의표명을 보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행장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는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정원박람회 공식후원은행을 유치하는 등 탁월한 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 광주은행을 우량 지역은행을 넘어 글로벌 은행으로서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송 행장은 보성군 별교 출신으로 1971년 상업은행에 들어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상리금융그룹 회장 내정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취임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영빈 경남은행장도 이날 중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우리금융을 나머지 계열사 대표들도 곧 차례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사 대표들의 일괄 사의는 오는 14일 취임하는 이순우 신임 우리금융 회장에 재신임을 묻는 차원이며 우리금융 안팎에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후원 기아차, 광주시에 1억5천만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공장장 김중웅)이 10일 광주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후원금 1억5000만 원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후원금은 광주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족 25가구(4인 기준)가 고향을 방문하는 데 지원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광주지역의 다문화 가족 중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접하고, 지난해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기아차의 후원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 7개국 36가구가 고향을 방문했다.

참가를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광주시 각 구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면 된다. 후원금 가운데 일부 금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조성된 다문화 음식·의상·문화체험관 의 리모델링 비용, '다문화 자녀 멘토링 지원 사업' 등에도 사용된다.

김중웅 광주공장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행복 지킴이로서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다문화 가족 후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자동차 김중웅 광주공장장이 10일 김운태 광주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주택바우처' 내년 본격 시행

저소득층 100만가구 월 10만원 지급

내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임차료와 주택의 유지·수선비와 같은 주택 바우처가 지급된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약 100만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연간 120만 가량을 예산 범주내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제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할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임의규정인 주거비 보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임차료 부담이 가중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도록 하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종전과 달리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기존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위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1일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말 주택바우처 사업실제 연구용역 잠정결과가 나오는데로 공청회를 열고 세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10월중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32.70 (+8.85)	코스닥지수 547.00 (+11.25)	금리 (국고채 3년) 2.79% (+0.02)	원 달러 환율 1127.30원 (+10.20)
--------------------------	--------------------------	------------------------------	------------------------------

송원그룹, 금광기업 반환 소송

"양도대금 70% 이상 미지급... 계약 무효"

금광기업 "정산 마무리 되면 지급할 것"

송원그룹이 지역 중견 건설사인 금광기업과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광주지방법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주회사 송원 등은 지난해 12월 금광기업의 현재 대주주인 세운건설과 금광기업을 대상으로 주

식명의변경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송원은 소장에서 주식양도 대금 가운데 70%가 넘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해 주식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송원은 또 금광기업과 세운건설을 상대로 주식 처분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

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금지 결정을 받아냈다.

광주지법은 이르면 7월 초 선고공판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광기업 대주주 측은 채무정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마무리 되면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세운건설이 인수해 2012년 2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8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오는 8월부터 이동통신 가입비가 40% 인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최문기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난 자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8월 중 40% 인하하고, 2015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석재 KT 회장, 이

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창조경제 실현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동 3사 CEO는 간담회에서 이동통신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각각 받고 있다. 가입비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로,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000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장관은 IT 행사 등에서 이동 3사 CEO들과 만난 적은 있지만 이들과 별도로 회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 장관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가입비 인하 방안 등에 이동사들이 협조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고 지난달 발표한 '2013년 이동통신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특별한 기회

광주 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박동한
광주 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행사팀대 감독

양동아
광주 MBC 아나운서, 광주 MBC 아나운서

황정숙
KBC 광주방송 작가리porter, KBS 광주방송총괄 MC

장문정
광주 MBC MC, 리porter, 광주교통방송 MC

최이슬비
TBN 광주교통방송 MC, 리porter, 광주 MBC MC, 리porter

최인수
TBN 광주교통방송 MC, EBS 교육방송 리porter, 전남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송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우동, 한예종빌딩 3층) (주)일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